

판소리로 듣는 '해상왕' 장보고 업적과 정신

26일 26문화전당...티켓 선착순 배포
임진택 명창 작창 '세계인 장보고' 공연



임진택 명창의 창작판소리 '세계인 장보고' 광주 공연이 오는 26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다. <원도근 제공>

'해상왕' 장보고의 업적과 정신을 명창 임진택의 소리로 듣는다.

오는 26일 오후 7시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2에서 창작판소리 '세계인 장보고' 공연이 열린다. 완도군과 장보고글로벌재단이 공동 기획한 이번 작품은 앞서 17일 서울 남산국악당 초연 이후 이날 광주 관객을 찾는다.

'세계인 장보고'는 장보고글로벌재단의 명예이사장인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이 펴낸 '장보고' (2003)를 토대로 한 장보고의 일대기에 고증과 현대적 해석을 더했다. 장보고는 완도에서 태어난 신라인으로서 당나라에 건너가 용맹을 떨치고 귀국해 청해진을 설치, 해적을 소탕하고 당나라·신라·일본 3국의 해상교역을 전개한 '해상왕'의 무역을 이며 한·중·일 3개국 정사(正史)에 기록돼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

그동안 소설, 다큐멘터리, TV드라마 등에서 '해상왕' '해신' (海神) 등으로 해석됐지만 이번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인이라 관점으로 1200년 전 동아시아 해양 무역을 석권한 '세계인 장보고'의 기상을 담아냈다.

작품은 장보고의 유년 시절과 활약을 담은 1부 '풍운아 장보고'와 바다를 누비며 활약하는 모습과 그의 시대 정신을 그린 2부 '해상왕 장보고'로 구성됐다.

1부 무대는 고수 심재문의 북장단에 맞춰 이재영 명창이 노래하고 2부는 임진택 명창이 고수 이규호

와 함께 무대를 꾸민다. 임 명창은 특유의 뛰어난 해학과 풍자로 무장한 사설(辭說·아리리)로 인물과 사건을 조망할 예정이다. 신라 귀족문화의 병폐를 오늘 날에 빗대거나 '홍보가 제비노정기' '심청가 옹공장면' 등 옛 판소리의 눈대목을 끌어다 쓰며 새로운 대목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임 명창은 "단순한 전기가 아닌 해석과 비평이 담긴 평전이라는 점이 이 작품의 특성"이라며 "관중이 함께 매기고 받는 소리대목을 넣어 관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민중문화운동 1세대로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이기도 한 소리꾼 임진택은 창작 판소리에 힘을 쏟아왔다. 마당극 '밥', 서사극

'직녀에게'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등을 연출했고 대표작으로 '오월광주' '똥바다' '소리내려' '백범 김구'가 있다. 육관문화재단, 백상예술대상 특별상 등을 받은 그는 현재 창작판소리연구원 원장·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진택 명창은 지난해 2월 광주시 광산구와 윤상원기념사업회가 공동 기획한 창작판소리 '윤상원가'를 선보이기도 했다.

배기호씨가 이번 공연의 연출을 맡고 우윤식(영상), 김장길(무대), 양정순(제작)씨 등이 제작 참여했다. 전석 초대. 예약·문의 010-3765-3754(공연 당일 오후 6시부터 매표소에서 입장권 배부).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박씨 부인전' 등 한국 설화 캐릭터 판타지극 재현

문화전당 개관 4주년
'R.E.X:불멸의 힘' 시연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창·제작공연 '렉스'가 19~20일 시연회를 가졌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박씨 부인전' '홍계월전' 등 한국 설화 캐릭터가 판타지극으로 재현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이 개관 4주년을 맞아 '킬러 콘텐츠'로 키운 공연 'R.E.X(렉스):불멸의 힘'을 통해서다. 한국 고전무술을 무대에 옮긴 '마살아츠(무예) 판타지 퍼포먼스'를 내건 이 공연에는 4D 입체형 무대, 미디어아트를 접목한 키네틱 라이트 아트, 수문(水門) 구현 등 첨단 무대 기술이 총동원됐다.

'R.E.X'는 지난 19~20일 문화전당 극장1에서 30분 분량으로 3차례에 걸쳐 시연회를 가졌다. 19일 오후 찾은 공연은 일찌감치 매진돼 200석의 객석을 가득 메웠다. 연출을 맡은 한경아 (주)쇼앤아츠 대표는 공연 시작 전 "본 공연의 절반 가량 공개될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 고대신화에서 복원된 15명의 캐릭터 중 9명의 캐릭터가 관객들을 만난다"며 "완성도 높은 융·복합을 위해 관객들이 많은 의견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 고대를 배경으로 한 이 공연은 인간 세상을 지배한 수명장자가 하늘 세상과 전쟁을 일으키면서 전개된다. 천둥이와 이시백(박씨 부인전) 일행은 수명장자와 저승차사, 악대에 맞서 한판 승부를 벌인다. 뱀과 독벌레로 표현되는 마신 유사점과 울루, 꽃의 여신 한락궁이 등은 극을 전환시키는 매개가 됐다.

그동안 흔히 접할 수 있었던 프로시니엄(Proscenium) 극장 공연은 무대를 배경 역할에만 머무

르게 했다면 '렉스'의 넓은 U자형 무대는 극을 이끌어 가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했다. 무대 바닥에 적용된 미디어아트 영상은 관객이 현실과 가상의 경계에서 서서 극에 몰두하도록 했다. 수직 이동하거나 분리되는 무대는 인물의 극적인 등장을 도왔으며 한국 전통곡예와 비보잉 군무, 와이어 비행 연기가 이뤄지며 볼거리를 더했다. '렉스'는 오는 12월 공연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제64회 호남예술제 피아노 입상자 명단

<p><심사위원> 구재형(호남신학대 교수) 허정화(순천대 교수) 박효정(한일장신대 교수) 함정옥(남부대 교수) 김신영(목포대 명예교수)</p> <p>◇초등부 1,2학년 ▲최고상 23 장유림(목포부주초2) ▲금상 7 유나경(신창초2) 11 신은서(광주효덕초2) ▲은상 1 이주은(태봉초2) 8 이시은(라온초2) 10 송하율(조봉초2) 27 박인설(광주효덕초2) 43 손호진(광주동운초1) 44 최윤정(목포영산초2) ▲동상 5 김은서(광주효덕초2) 6 박하진(만호초2) 12 김서연(빛누리초2) 15 정하연(문정초2) 21 김연진(화순초2) 28 문근영(문정초1) 33 박희원(광주송원초2) 52 정유아(블로초2)</p> <p>◇초등부 5,6학년 ▲최고상 23 나지연(목포영산초6) ▲금상 4 김연수(목포영산초5) 11 이준범(봉산초6) 20 박가인(목포영산초6) 37 윤경환(조봉초5) 48 김재운(첨단초6)</p>	<p>49 유신호(조봉초5) 75 소중환(천서초5) ▲은상 8 홍제희(목포애향초5) 21 김다현(장덕초6) 29 정해인(만호초6) 31 이선영(곡성중앙초6) 56 이서은(전주오송초6) 60 송민경(일곡초6) 63 이하나(전주반월초6) 76 조하은(태봉초6) 93 이인영(광주효덕초5) 94 정현주(문흥초6) ▲동상 1 김가은(금호초5) 7 양소망(광주운암초6) 13 김소희(빛누리초5) 19 양승혁(만호초5) 24 황인창(대자초6) 36 봉솔비(봉산초6) 53 이시우(대자초6) 67 김지우(일곡초5) 68 김윤아(일곡초6) 71 김성현(빛가람초6) 74 김진형(무등초5) 77 백우선(대자초6) 80 박수현(태봉초5) 86 김다희(태봉초5)</p> <p><심사위원> 박행숙(목포대 교수) 유정아(광신대 교수) 황미경(순천대 교수) 서윤진(광주교육대 교수) 이성은(전남과학대 교수)</p> <p>◇초등부 3,4학년 ▲최고상 22 정소윤(수완초4)</p>	<p>▲금상 3 이지혜(태봉초4) 18 황서연(목포영산초4) 25 구나연(광주학운초4) 50 최한별(지명초3) 72 김가은(운전초4) 98 임예준(태봉초4) 102 최민아(이리마한초4) ▲은상 8 광은서(신창초3) 11 유시연(목포영산초4) 19 정하을(순천남초3) 21 박서희(신창초4) 23 김태호(빛가람초4) 45 조윤진(군산초4) 53 김가은(광교대광주부설초3) 58 문예운(운전초4) 73 김가원(빛가람초4) 94 배서운(빛누리초4) ▲동상 20 임채민(구례북초3) 24 김태연(문산초4) 26 김예은(봉산초3) 28 유재호(조봉초4) 29 최유진(대자초4) 40 김연경(광양중마초4) 43 이호은(블로초3) 51 정예성(월광기독교초3) 54 한소울(운전초3) 60 박현준(목포애향초4) 64 이정현(광주송원초4) 68 김예린(운전초4) 71 류시현(전주오송초4) 88 문정현(광주효덕초4) 89 김예은(태봉초4)</p>
---	---	--

※장려상 입상자는 호남예술제 홈페이지(art.kjmedia.co.kr)를 참조 바랍니다.

슈베르트 탄생 222주년 기념 이승희·윤소희 콘서트

오늘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소프라노 이승희, 첼리스트 윤소희

슈베르트 탄생 222주년 기념 소프라노 이승희와 첼리스트 윤소희의 '슈베르트 듀오 콘서트'가 오는 22일 오후 7시 30분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은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가단조 작품 821' 1-3악장으로 문을 연다. 슈베르트가 1824년 11월 비엔나에서 작곡한 이 곡은 본래 아르페지오네라는 악기를 위해 작곡된 작품이다. 윤소희는 전남대를 졸업한 뒤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전문연주자 과정과 바이마르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목포대·광주교대에 출강하고 있다.

이어 슈베르트의 대표적 가곡들을 소프라노 이승희가 선보인다. 이승희는 전남대·뉴욕 맨해튼 음대를 졸업한 뒤 뉴욕 주립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전남대·호신대에 출강하고 있다. 이날 '봄의 찬

가' '음악에' '들장미' '무한하신 분께' '죽음과 소녀' '마왕' 등으로 무대를 꾸민다. 광주를 기반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두 사람은 '조이 오브 뮤직'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이날 첫 번째 시리즈 연주회를 갖는다. '조이 오브 뮤직' 회원인 피아니스트 반수진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전석 2만원(학생 1만원). 문의 010-6716-0911.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FACE 메이크업은 하시면서,
BODY 는 왜 메이크업을 하지 않으십니까 ?

4주
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 속옷 장수기업

가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주변 불편을 해소! 편안한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일본도레이社LYCRA 별단면육각형사용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기공 (원적외선파동)

www.aroma-life.co.kr

1588-2219